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달라진 '화순적벽' 버스 투어, '호평' 속 운행 시작

적벽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2개 코스 개발



화순군이 운영하는 '설렘화순 버스투어'가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23일과 24일 올해 들어 처음 운행한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화순적벽을 중심으로 개발한 2개 코스를 선보였다. 군은 지난해까지 화순적벽 일대만 운행했던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개편했다. 화순적벽 인근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2개 코스를 개발해 추가했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과 24일 이들 동안 설렘화순 버스투어에 496명이 탑승했다. 예약률 71%를 보이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화순적벽을 중심으로 한 투어 코스가 추가되고, 현지 탑승도 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호평받았다. 투어 버스도 28인승 리무진으로 교체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인락한 분위기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부산에서 단체로 화순적벽을 찾은 이 아무개 씨(62세·부

산)는 "화순은 적벽의 풍광뿐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천의 물이 너무 인상적이다"며 "화순의 큰 자산이므로 보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매주 수·토·일요일 주 3회 운행하며, 투어 예정일 2주 전부터 인터넷으로만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없이 화순을 방문한 관광객을 위해 현지 탑승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2개 코스를 운행한다.

동부권 코스는 적벽과 ▲국가 지정 명승 '임대정 원림' ▲김삿갓 종명지가 있는 '김삿갓 동산' ▲MBC 아빠 어디가 촬영지인 '연동리 숲정지' ▲오지호 기념관 등을 연계했다.

서부권 코스는 적벽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전불전담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문주사' ▲'조광조 선생 유배지' 등을 둘러보는 코스다.

적벽만 둘러보던 기존 코스도 계속 운영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시립박물관 현장실사 준비 '총력'

여수시가 시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시립박물관 현장실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사는 여수시립(공립) 박물관 설립타당성 신청이 지난 21일 문체부 서면평가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실사 당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심의위원회는 이순신공원에서 박물관 건립계획과 소장 유물 등을 확인·조사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사전평가에 앞서 30만 시민의 열과 뜻을 하나로 모아갈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4월 초 출범할 계획이다.

또 심의위원에게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염원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담양군, 딸기 종묘 보급기반 조성 '탄력'

농식품부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구축' 공모 선정

담양군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점 추진 중인 딸기 육묘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딸기 육묘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7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자체개발한 '죽향', '베리퀸' 등의 우수한 품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딸기 종묘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확대 위해 군비 포함 총 15억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딸기 육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담양에서 자체 개발한 '죽향', '베리퀸' 등의 딸기는 당도가 높고 기온이 높아지는 3월에도 쉽게

물러지는 다른 딸기와는 달리 단단하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확해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고품질을 유지하는 특징을 지녔다.

군은 이번 딸기 육묘센터 신축을 통해 최대 관련인 도매시장인 착륙의 조건인 재배면적 조기 확대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딸기 육묘센터 신축을 시작으로 우수한 딸기 종묘의 품질관리 기반 구축 및 시설 환경개선을 해나갈 것이다"며 "담양군의 우수한 딸기 종묘를 많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군, 금곡사 명품 벚꽃길 가꾼다

군동 문화마을~폴치재터널·성전 IC 구간 가로수 정비



강진군이 명품 벚나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군동 문화마을~폴치재터널 강진 IC 구간 벚꽃나무 정비에 나섰다.

이번에 벚나무 가로수길 정비가 시행되는 곳은 매년 봄이면 분홍빛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루 상춘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강진의 대표 명소

로 군동 문화마을~금곡사, 폴치재터널 강진 IC 구간으로 총 약 20km 구간이다.

특히, 이 벚꽃길은 30여년 전 강진군청 공무원들이 1인당 벚나무 10그루씩 심기운동을 통해 조성해 지금의 명품 가로수길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상춘객들에게 강진 벚꽃길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여주기 위해 총 280여주 벚나무를 기존 벚나무 가로수길 내 비어있는 구간이나 고사되어있는 가로수를 보식하고 교체할 계획이다.

김영기 해양산업과장은 "벚꽃나무

길 정비사업은 새로 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끝난 후, 지속적으로 도로 안정상의 위험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벚나무의 처져있는 가지치기를 실시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벚나무 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의 대표 봄철 명소인 벚꽃길에서는 이번달 30일과 31일 이틀간 강진군파벳꽃길 나들이 축제가 개최된다.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벚꽃길 보물찾기, 나만의 화전 부치기 체험, 먹거리 부스 운영, 플라마켓 등 각종 체험 행사나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축제장을 찾는 상춘객들에게 만족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김영기 기자

영암군,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효과적 대응 마련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영암군이 미래지향적인 장사문화 발전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을 마련했다.

영암군은 지난 26일 군청 남산실에서 손정식 부군수, 관계 부서,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된 영암군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

한 결과, 영암군의 장사시설 수급 추계, 공동묘지 재개발 방안과 기존 장사시설 정비방안, 장사시설 운영 방향과 도입방안 등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향후 영암군 장사시설 운영에 관하여는 자연장지, 봉안시설 확충 및 사용료 개선, 의식조사·분석, 공동묘지 재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이 외에도 장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으며,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장사시설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에 맞춰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발맞추어 영암군민에게 선진적인 장사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전립선 무료검진 관심 폭발

전립선 무료검진·건강강좌 지역민 769명 몰려



지난 23일 장흥 통합의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립선 무료검진과 건강강좌가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55세 이상 남성 76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검진은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국내 저명한 교수들로 구성된 의료진은 혈압, 설문조사, 요속검사, 초음파 검진, 직장 수지검사, 전립선암 검진 등 무료진료와 건강강좌를 운영했다.

서양에서 전립선암은 남성 암 가운데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경우 사망률 2위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암은 50세 이전에는 흔하지 않은 질환이나 50세를 넘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우리나라 남성 암 5위)

따라서 전립선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흥군은 2018년 통합의화비림회 기간 중 758명 전립선 검진을 실시해 정상 87명(11.5%) 배뇨장애 증상 보유 67명(8.5%) 유증상자를 발견했다.

그 중 전립선암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107명으로 전체 참가자 중 14.1%로 나타났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장흥군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군민 행복을 약속 했다"며 "건강한 삶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햇광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